

##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이 승 역\*\*

1. 머리말
2. 기록 평가선별 결정 요인
  - 1) 기록 라이프사이클
  - 2) 기록 가치의 분류
  - 3) 사회의 표상
  - 4) 기록의 배경
  - 5) 소 결
3.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틀
  - 1) 특성론
  - 2) 가치론
  - 3) 맥락론
  - 4) 소 결
4. 맺음말

주제어 : 기록평가선별, 기록라이프사이클, 기록가치론, 기록맥락론, 쉘렌버그(Schellenburg), 젠킨슨(Jenkinson), 진본성, 도큐멘테이션, 포스트모더니즘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KRF-2004-073-AS2006).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주요논저: 「4.19직후 李承晩·李起鵬일가 재산조사기록」 『기록보존』 16, 2000 ;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 2002 ; 「현행 국가기록보존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통령소속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I: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 1. 머리말

인간은 문자로 의사를 소통한 이래 무형의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왔다. 기록된 정보는 사고나 활동의 증거로서 인간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매개이다. 기록된 정보는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사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sup>1)</sup> 이와 같은 기록의 계속적 활용이 결국 기록이 지닌 가치의 근거이며 또 한편으로 기록의 계속적 효용성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 기록에 가치를 부여하는 컨텍스트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기록 평가 선별은 말 그대로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길 기록(archives)을 골라내는 일을 말한다. 넓게 보면 기록 평가에는 물리적 상태의 점검, 매체수록 여부의 결정 그리고 금전적 가치의 감정 등이 포함된다. 이 글의 대상은 그중 가장 기본적인 평가 즉, 계속적 가치에 따라 장기 보존할 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이다.

기록 평가선별은 현대 기록관리 이론 및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영역이다. 그 근본 이유는 기록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반면 그것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지만 그렇다고 기록의 평가 선별이 기록의 물리적으로 보존 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자기술 발달에 의해 정보 저장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선별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나아가 평가 선별해야 할 현실적 이유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선별된 기록의 활용성에 비추어 그 보존에 쓰인 자원

---

1) Brown, John Seely and Duguid, Paul, "The Social Life of Document"  
<http://www.firstmonday.dk/issues/issue1/documents> (2002.1)

의 정당함을 해명하고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 인간 인식활동의 본원적 요구에 맞게 평가와 선별에 적용된 기준에 대한 의문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 이상 기록 평가 선별은 기록관리의 핵심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sup>2)</sup>

실무과정상 기록의 평가는 선별 또는 수집을 수반한다. 그렇지만 평가와 그에 따른 선별이나 수집을 그 목적에 비추어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콕스는 평가의 목적은 평가 근거에 관한 충분한 기술(記述)에 있으며 평가의 목적이 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sup>3)</sup> 이는 사회적으로 다원화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록 가치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여 평가 내역의 설명책임(accountable)을 지향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평가의 본질은 기록이 지닌 의미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기록화(documentation)이며, 이에 비해 선별과 수집의 본질은 평가 결과를 실현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될 것이다. 결국 기록을 평가하고 선별을 결정하는 일은 기록에 관한 분석적인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평가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절차나 체계를 실행하는 기법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이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에서의 기록 평가에는 그와 같은 이해관계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의 선별이나 폐기를 둘러싸고 첨예한 해명 요구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근래 개관한 민주화운동사료관이나 노동운동아카이브처럼 사

2) 石原一則, 「評價選別の歩みと現在」,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 編, 『ア  
カイブズの科學- 下』, (東京: 柏書房, 2003) p 115.

3) Cox, Richard, "The End of Collecting: Toward a New Purpose for Archival Appraisal,"  
*Archival Science* Vol 2, No.3/4 2002, pp.287-309

회적 합의에 따라 특정 기록물들에 대한 수집·보존 프로그램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록을 남기거나 수집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은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든지 전문적인 기록 평가업무에 부과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즉 평가선별에 대한 해명은 그것이 계층·계급적으로 편중된 선별을 비판한 사회적 관점에서든 인식 가능한 근거를 통해 개별 평가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을 도출하려 한 미시적 접근에서든 기록관리 영역에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결국은 평가선별은 결정에 관한 해명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해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식화된 지표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선별 결정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평가선별의 실제 결정요인을 정식화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평가선별의 결정요인을 검토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제 평가실무자들이 인지하고 영향을 받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볼스(Frank Boles)는 정부, 기업, 대학, 종교 등 주요 분야 기록관 구성원 중 평가선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개별 평가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서 기록의 내용, 보존비용, 특정 조건에 의한 권고사항 등 세 가지 작동 모듈을 제시한 바 있다.<sup>4)</sup> 볼스의 연구성과는 실제 평가주체가 주로 염두에 두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접근하여 주관적 과정인 평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하려 한 것으로서 방법론 측면에서 의미를 갖

4) Boles, Frank *Archival Appraisal*,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1991) ; Boles, Frank and Young, Julia M., "Exploring the Black Box: The Appraisal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Records," *American Archivist* 48 (Spring 1985): pp. 121-40

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기록 평가선별 실무를 맡은 주체가 의미 있는 다수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장 조사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글은 구체적인 평가담당자나 평가실무로부터 접근하기 보다는 기존 평가선별론에서 제기된 중요 논점을 통해 평가선별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범주를 설정하고, 이러한 범주를 통해서 평가선별 결정과정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화된 평가선별 결정 과정은 결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을 정합성 있게 해명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논의는 ‘기록 라이프사이클’, ‘증거’와 ‘정보’로 대표되는 가치 개념, 평가의 사회적 요인 등 주로 구미에서 전개된 평가선별론의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점들을 바탕으로 기록 확인에 관한 문제, 가치설정에 관한 문제, 기록 배경 파악에 관한 문제의 해명에 필요한 것을 이론적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론 범주는 평가 선별 결정에 관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접근과 분석의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는 기록 평가선별을 실행하거나 결정 결과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 틀을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비용문제를 비롯한 개별 기록관의 재정 조건은 평가선별 결정에서 실질적인 변수임은 분명하지만 본 글의 해명 대상은 아니므로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전자기록을 비롯한 특정 매체의 평가선별 문제도 다양한 논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일반론과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 2. 기록 평가선별 결정 요인

### 1) 기록 라이프사이클

아카이브즈는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담겨있는 정보의 지속적 가치(enduring value)가 있음으로써 또는 생산자의 책임과 의무를 입증할 수 있음으로써 보존되는 자료’를 의미한다.<sup>5)</sup> 여기에서 ‘지속’이란 말의 문맥은 기록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서 원래 생산된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기간을 넘어서 기록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 라이프사이클 개념은 미국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기록 평가선별에서 기록 라이프사이클이 갖는 의미는 기록이 존재하는 전체 시간범위 속에 기록의 효용성이 구별되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쉘렌버그(T. S. Schellenburg)는 기록의 효용가치를 이른바 기록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우선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으로 나누었고, 이차적인 효용가치는 다시 ‘증거’와 ‘정보’로 구분하였다.<sup>6)</sup>

라이프사이클론은 쉘렌버그 이전 이미 브룩스(P. Brooks)에 의해 그 단초가 제시된 바 있다. 원래 생산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의미와 이후 별도의 맥락에서 생겨난 의미에 따라 기록 효용의 특성을 구분하는 미국 아키비스트들의 접근방식은 기록의 가치 구성에 관한 인식에 지대한

5)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es and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4(exposure draft), pp35-36.

6) Schellenberg, T. R.,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NA bulletin* 8 (Washington: NARS, 1956. 오항녕 편역,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29-47쪽.

영향을 미쳤다. 듀란티는 쉘렌버그의 주기구분은 기록학이론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실용적 근거로부터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7)</sup> 그렇지만 엄밀하게 듀란티가 강조한 것은 주기 구분 그 자체라기보다는 주기구분에 따라 구별되는 가치를 부여하는 아키비스트 역할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아키비스트나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추가적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듀란티는 쉘렌버그식 주기구분에는 반대했지만 기록 가치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즉 기록에 대한 유럽의 전통적인 관념으로서 아카이브즈의 본질을 ‘영속적인 기억’이라 규정한 것이 그것인데, 영속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곧 기록이 생성된 이래 기억의 수단으로서 무언가 계속적인 쓸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8)</sup> 따라서 기록의 가치가 이용자의 관점에서 임의적으로 재단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효용 즉, 일종의 ‘계속적인’ 효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생산과 연계된’ 지속적 가치라는 관점과 ‘생산목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별도의 지속적 가치라는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보다도 두 관점이 동일하게 기초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기록은 기록이 존재하는 생애주기에서 계속적인 효용성에 의해 의미가 확인되고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라는 사고가 기록 평가선별 결정의 기본적 인식 기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7)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7 (Spring 1994): 328-344. 오항녕 편역, 앞의 책, 294쪽.

8)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오항녕 편역, 앞의 책, 279-280쪽.

## 2) 기록 가치의 분류

브룩스, 바우어(P. Bauer), 쉘렌버그 등 초기 미국 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s)의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의 가치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는데, 기록 가치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은 기록 평가 선별 결정에 대한 객관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20세기 들어 막대한 양으로 생산된 정부 기록을 그 당장의 효용성과 미래의 이용가치에 적절하게 처리할 원칙과 기법이 필요했다. 기록 가치를 분류함으로써 기록평가선별에 있어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명료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선별결과의 타당성을 신뢰할 수 있는 평가선별체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기록에 대한 평가선별 정책은 누적된 기록물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처리 방식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기록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것이 기록물 처리일정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브룩스는 생산자의 기준, 행정사적 기준, 역사적 기준 등 세 가지 범주를 통해 기록의 가치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산자나 행정사적인 기준에 의한 선별은 개별 단위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역사적 기준에 의한 선별은 대개 기록군의 집합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브룩스의 견해가 지닌 의의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기록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적용되는 가치가 구별된다는 점을 착안하였다는 점이었다. 한편 바우어는 기록의 효용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즉, 그는 공공기관의 업무 참고, 시민권리 보호, 학자들의 연구, 계보학(genealogy) 또는 골동품으로서의 가치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바우어의 우선순위는 한편으로는 보존 비용을 정당화하는 척도

이기도 했다.<sup>9)</sup>

셸렌버그는 정교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록 가치의 개념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그는 기록의 가치를 현용단계의 '1차 가치'와 비현용 단계의 '2차가치'로 구분하고, 2차 가치는 다시 '증거'로서의 가치와 '정보'로서의 가치로 나누었다. 1차 가치는 기록 생산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재무, 행정적, 법적 목적의 이용에서 확인되는 가치를 말한다. 이에 비해 2차 가치는 현재 활용이 종료된 뒤의 계속적 가치(continuing value)를 의미한다. 따라서 2차적 가치의 증거가치는 1차 가치에서의 직접적인 업무 목적에 의한 가치와 구별되는, 생산자의 존재나 활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증거라는 차원에서의 가치이다. 정보가치는 기록에 담긴 인물, 사물, 현상 등 내용에 관한 것으로 기록의 형식이나 포괄성, 유일성 같은 정보의 밀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생산 목적이나 증거와 구별된다.<sup>10)</sup> 셸렌버그의 가치론은 기록에 담긴 정보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 의미를 정형화함으로써 정식화된 기록 평가선별 지표를 설정하는데 용이한 개념을 제공하였다. 셸렌버그의 개념은 실제 기록관리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 아키비스트인 젠킨슨(H. Jenkinson)은 가치의 특성을 구분하는 셸렌버그의 입론에 반대하였다. 그는 비현용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별도의 이용 가치라는 개념을 부정하였는데 기록의 가치는 기록(archives)의 자체 특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활용도에 따라 구분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아카이브

9) 安藤正人, 「歐米記録史料學における記録評價選別論の展開」, 安藤正人·青山英幸 編 『記録史料の管理と公文書館』,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95 pp.482-483. ; Boles, Frank *Archival Appraisal*, 오향녕 편역, 앞의 책, 9-11쪽.

10) Schellenberg, T. R.,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오향녕 편역, 앞의 책, 3-32쪽.

즈는 라이프사이클의 특정한 단계에 존재하는 특성이 아니라 본원적으로 내재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젠킨슨의 사고가 실제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그의 영향이 깊은 영국의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성립한 영국의 공공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기본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그리그(Grigg)시스템은 기록 평가를 생산 후 5년과 25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행하는 체제였는데, 1차 검토는 행정적 기준으로 제2차 검토는 역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그시스템체제는 평가선별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인 행정을 위한 자료와 연구를 위한 자료의 밀접한 관련성’ 또는 ‘기록생산자와 연구자 사이의 목적상의 친연(親緣) 관계’를 추구하였다.<sup>11)</sup> 이는 그리그시스템이 젠킨슨의 영향에 따라 웰렌버그의 2차적 가치 즉, 생산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록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속적 가치 생산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긴 했지만 연구라는 별도의 이용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간과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영국의 현실 제도에서도 순전한 이용목적에 의한 계속적 가치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록의 생산 목적에 의한 가치와 계속적 가치의 관계와 함께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웰렌버그가 제시한 계속적 가치의 ‘증거’적 성격과 ‘정보’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쿡(Michael Cook)은 제도적인 평가선별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아키비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선별 훈련이 행정적·제도적·법적 연혁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 결과, 실

11) Elisabeth Shepherd ed., *Theories of Appraisal*,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School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1997 [<http://www.ucl.ac.uk/SLAIS/projects/level1.htm>]

제 평가선별에서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제도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우선적으로 보존하도록 선택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기록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모(母)기관에 대한 증빙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12)</sup> 쿡의 견해는 주로 기관형 기록관에서의 제도화된 평가선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었는데, 가치론의 측면에서 보면 증거로서의 가치보다 내용에 담긴 주제에서 포착될 수 있는 정보가치를 평가선별 결정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독일 아키비스트인 만하리츠(Angelica Menne-Haritz)는 기록 평가선별 결정에서 기록의 생산목적과 관련된 증거로서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녀는 기록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집합으로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제어하기 위한 지적 작용 수단으로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3)</sup> 이러한 점이 이차적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도 기록을 믿을 만하고(authentic) 진실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거는 평가선별을 위한 단순한 개념적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인 것이다.<sup>14)</sup> 만하리츠의 증거 개념은 기록 생산의 원인인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기록의 내용에 얼마나 부합되는가가 기록 가치의 중요한 척도라고 본 것으로서 목적 지향적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증거는 단순히 행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행위의 목적과 기

---

12) Cook, Michael,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from Archives*(Shaftesbury: Gower, 1986) p 71, Boles, Frank, *Archival Appraisal*, 오항녕 편역, 앞의 책, 23쪽에서 재인용.

13) Mene-Haritz, Angelica, "Appraisal or Selection Can a Content Oriented Appraisal be Harmonized with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he Principle of Provenance, 1st Stockholm 1993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2-3 sept) p122.

14) Mene-Haritz, Angelica, "Appraisal or Selection Can a Content Oriented Appraisal," p126.

록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만하리츠의 증거 지향의 가치론은 쉘렌버그의 이차적인 증거 가치를 행위의 입증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편 듀란티는 생산자의 기준에 따라 남겨진 기록의 전체적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별과 수집이 평가의 본질이라고 하였다.<sup>15)</sup> 일차적 가치와 이차적 가치의 엄밀한 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아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역시 크게 보면 증거를 우선시한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의 계속적 가치를 판별하는데 있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증거와 정보 어느 한 쪽에 결정적인 비중을 두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쉘렌버그도 언급했듯이 정보와 증거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며 증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sup>16)</sup> 다시 말해 정보가치는 기록에 담긴 사건이나 사물에 관한 ‘정보’지만 증거가치 또한 기록 생산자에 관한 ‘정보’일 수 있는 것이다. 정보가치를 판별하는데 필요한 기록의 형식이나 포괄성 등은 한편으로 증거가치의 판별에도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정보와 증거가 가치 평가에서 일종의 접근점이 될 수도 있으나, 정보와 증거의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실제 기록 평가선별 결정 요인이 정보와 증거 개념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증거와 정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에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와의 접목을 통해서 기록의 선별에 반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개념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생산자나 이용자 모두를 포괄하는 평가 주체

15)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오향녕 편역, 앞의 책, 301-304쪽.

16) 쉘렌버그는 정보가치와 증거가치를 가늠하는데 있어 모두 동일한 고려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Schellenberg, T. R.,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오향녕 편역, 앞의 책, 45쪽.

의 관점에서 비롯된 의미부여 유형이 정보나 증거의 보다 명확한 구분점이 될 것이다.

### 3) 사회의 표상

기록은 어떠한 목적으로 생산되었는지 기록이 생산된 당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록의 가치를 이용자 개별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간주하는 입장의 토대를 이룬다. 기록을 통해 사회의 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입장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기록의 효용성을 증거 또는 정보 등으로 개념화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서술적 범주화(descriptive categorization)’가 평가선별을 위한 우선적 관건은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에 담긴 사회의 표상(表象)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사회의 본질 또는 실상에 대하여 선별된 기록이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반성이 그 계기가 되었다. 서구에서 이와 같은 평가선별 경향이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의 현상이었던 분단 독일의 서독과 흑인 인권운동 등에 의한 사회불안이 불거진 미국에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독일 아키비스트 뵘스(H. Booms)는 기록은 기록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투영으로서 실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록 평가선별은 기록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나오게 된 사회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평가선별 작업을 통해 구성된 기록에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혼합된 전체로서 사회의 이미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에 있어 기록의 평가선별은 다양한 사회집단들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최소한의 기록으로 남기는 창조

적이며 능동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남은 기록은 동시대인이 인정한 가치의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동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매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주장한 평가선별은 우선적으로 기록 생산 배경인 사회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에 부여된 일정한 우선순위를 토대로 도큐멘테이션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남길 필요가 있는 기록군을 구축하는 것이었다.<sup>17)</sup>

미국 아키비스트 햄(G. Ham)은 미래를 위한 정보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대의 대표적인 척도를 선별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여기에서 평가선별 결정의 본질적인 의의를 찾았다.<sup>18)</sup> 1980년대 미국의 아키비스트들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협동적인 기록 수집을 추구한 이른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주창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그때까지 개별 기록관 차원의 평가선별 결정에 의해 남은 기록들이 중복되고 편파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 따라 전 사회적 기록 총량을 대상으로 하는 협업적인 선별과 수집을 시행할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sup>19)</sup>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후대에 이어질 현 시대의 대표적 척도가 될 기록군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구성이라는 점에

17) Booms, Han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 *Archivaria* 24 (Summer 1987): 69-107, 오항녕 역, 앞의 책, 218-219쪽.

18) Ham, Gerald,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38 (January, 1973) pp333~335. 1970년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은 미국 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회의에서 미국에서 기록의 보존이 정부, 기업,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고 유력한 사회적 요소가 되었는데 비해 그에 따라 남겨진 기록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하면서 아키비스트들이 모든 영역으로부터 일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바라고 또 필요한 기록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햄은 이에 공감하였다.

19) Abraham, Terry,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4 (Winter 1991): p46.

있어서는 붐스의 도큐멘테이션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한편 쿡(Terry Cook)은 기록의 평가선별에서 거시적 관점의 하향식 기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그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분석 그리고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 관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록이 평가되고 선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sup>20)</sup> 쿡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닌 의의가 정보나 증거와 같이 가치 자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쉘렌버그의 분류학적(taxonomic) 가치론을 통해서는 사회적 역동성이나 기록생산의 입체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남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도큐멘테이션의 대상을 주제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sup>21)</sup> 이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에 포함된 주관적 요소를 비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큐멘테이션 계획, 도큐멘테이션 전략, 그리고 거시적 기능평가 모두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표상을 기록의 개별 가치에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한 같은 지향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점이다.

사회라는 요인이 개입된 기록 평가선별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듯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개별 효용의 해명이 아니라 기록이 전체로서 담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대표적인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20) Cook, Terry, "Macro 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25, No.1*, 2004. pp 5~18 ; "Appraisal Methodolog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Part A : Concepts and Theory", 2000 [www.collectionscanada.ca/information-management/061101\_e.html]

21) Cook, Terry,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Summer 1992): p186. 테리 쿡은 출처에 기반하고 구조 기능적 매트릭스를 이용한 평가선별이 우선이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이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는 사적 기록을 찾아내 수집하는 보완적인 절차라는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관적 실체이다. 따라서 동 시대를 표상하는 대표 척도가 될 잠재적 도큐멘테이션은 임의로 훼손되어서는 곤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도큐멘테이션의 구축이나 그 속에 존재하는 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평가선별 결정에서 중요한 과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4) 기록의 배경

기록의 배경은 중요한 기록물 기술 요소이다. 기록 평가선별 결정서도 기록의 배경은 중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그것은 기록이 생산되고 유지되는 맥락에 관한 일관된 해명에서 비롯될 고려 요소가 기록의 평가선별 결정요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록 평가선별 결정 요인으로서 기록의 배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거론해야 하는 것은 ‘출처(provenance)’ 개념이다. 출처는 어떤 기록의 기원과 보관에 관한 것으로서 활동의 증거로서 기록을 생산하거나 모아서 유지한 개인 또는 조직에 관한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sup>22)</sup> 기록 평가선별에서의 출처는 우선순위를 통해 표현되는데 그 사례로 기관의 위상과 결정권한에 따라 해당 생산기록의 선별을 결정하는 독일의 ‘행정체 위계론(位階論)’을 들 수 있다. 중앙의 기관일수록, 또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일수록 중요성을 인정하여 중요한 기관이 만든 기록일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관점은 공공 기록을 평가하는데 있어 하나의 전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다소 기계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

22) *A Glossary of Archives and Records Terminology*, p 211.

출처는 근대적인 기록관리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간주되었다. 전통적인 출처 개념이 기록의 조직 또는 인적 원천에 한정되는데 비해 근래의 출처 개념은 조직에 국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즉, 조직적인 출처에 대하여 기능에 기반한 출처 이른바, 기능 출처(functional provenance)가 그것이다.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가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능과 조직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지만 기능적 출처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양자가 대별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조직 출처가 조직의 잦은 변동에 따라 실체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반면에 조직 변화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기능 실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고가 기능 출처 개념을 부각시켰다. 또한 기능 출처는 기록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미리 정해진 요건에 의해 사전에 규정할 수밖에 없는 전자기록 관리환경이 대두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능출처는 이른바 ‘기록연속체(Records Continuum)’에 입각한 관리에서 기록 평가선별의 주요 거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기능 출처는 생산 목적을 중시한 평가선별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목적을 지향한 평가선별에서 중시되는 기록 생산 주체의 정식화된 절차인 기준이나 표준은 기능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주요 구성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만하리츠의 목적 지향의 평가는 기능 출처의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에 관한 증거를 지향한 평가선별은 최근 들어 국가단위의 제도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정부기록의 평가의 중심 거점으로 기관 기능과 업무활동을 상정하였다. 영국도 최근 평가정책을 정비하면서 업무활동이나 기능에 의거한 평가선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동향은 기록관리국제표준(ISO15489)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호주의 국가표준 AS4390으로부터 발전한 ISO15489는 그 적용대상을 현용 기록(records)에 한정하지만 기록의 계속적 가치에 따른 보유기간 및 처분 결정을 업무활동(business activity) 분석에 기반한 레코드시스템과 밀접하게 결합시킨다. 이상과 같은 최근 경향의 공통점은 ‘충분하고 정확한 진본’으로서의 증거력을 갖춘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평가선별 절차를 배치한다는 데 있다.

기록의 배경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사회 과정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조직의 상호작용의 총체이며 남겨질 기록은 이러한 사회과정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봄스의 주장은 기록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기능평가에서도 사회의 구조 기능적 맥락을 평가선별에 있어 본질적인 배경 요소로 상정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기록의 배경은 기록의 평가선별 결정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또 다른 기록 배경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활용과 관련된 것이다. 기록은 생산목적과 구별되어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활용은 생산목적과 관련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농지개혁 기록은 농정(農政) 목표에 의한 행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후대에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 증빙이나 역사 연구를 비롯한

---

23) 영국 국립기록관은 그리그체제의 기본은 가급적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평가정책을 재정비중에 있다. 즉 생산 5년 후의 행정적 검토와 25년 후의 역사적 검토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전자기록환경에 따른 연속체(continuum) 개념을 적용한 평가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TNA, *Appraisal Policy*(2004)

[[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appraisal/](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appraisal/)]를 참조.

다양한 이용 목적에 활용되기도 한다. 주민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민적(民籍)이나 호적(戶籍) 같은 공부(公簿)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개인사를 밝히는 단서가 되는 사료이기도 한 것이다.<sup>24)</sup>

그렇지만 기록의 다양한 활용을 예측하여 기록 평가선별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짓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 이유는 생산 목적과 구별되는 활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보가치의 견지에서 출발한다면 이용 배경은 켈렌버그가 제시한 형식이나 희소성과 같은 지표들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형화된 이용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이용의 맥락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정합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형화되면 평가선별 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의 맥락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5) 소 결

이상 기록의 주기, 가치, 사회, 배경 등 기록 가치 평가선별 결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맥락이나 논리는 구별된다. 그렇다고 이 각각의 논점이 최선의 평가선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배타적 방법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잡한 기록관리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평가선별을 위해서는 제기된 다양한 논점들이 포함된 융통성 있는 접근이 방법론적으로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평가선별 요소와 과정의 일반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기록 평가선별 결정 매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으로서는 기록 자

24) 전명혁, 「기록과 역사 -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역사이론과의 관계」, 『기록학연구』 제11호 한국기록학회 2005 pp 132~134

체, 기록 평가선별 주체 그리고 기록과 평가선별 주체의 존재를 규정하는 관계 형식 등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기록은 일정한 물리적 형식에 다양한 잠재적 의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실체이며 평가선별 주체는 그러한 기록에 효용성, 가치 등 스스로의 정당성에 기반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 두 요소는 관계를 규정하는 시간적, 공간적 형식을 통해 상호 관련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기록 평가선별의 결정이 현실화된다. 평가선별 결정을 이와 같은 요소에 기반한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평가 대상 기록의 확인 및 획득, 평가에 적용할 가치체계의 선택과 가치의 적용, 그리고 기록 생산과 지속적 유지에 관한 배경 요인의 파악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선별 결정 요소와 과정에 대한 일반화가 보다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범주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기록, 기록에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 또는 주체의 가치체계, 그리고 기록에 가치가 부여되는 맥락 등이 이론적 범주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기록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맥락 등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그 각각의 이론적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 3.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틀

#### 1) 특성론(characteristic)

특성이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특성은 상대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체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

한 개념적 수단이다. 기록은 매체라는 물리적 형식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 아니며, 개인이나 집단이 목적의식적으로 만든 지적인 인공물이다. 합목적적인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기록에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막론하고 기록을 생산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기록은 기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마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록의 특성에 관한 논의는 선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록이 생산되어 이용되고 또 유지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환경적 요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록의 특성은 경험에 따른 규범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기록의 본질에 대한 듀란티의 정의에 잘 나타난다. 즉 듀란티는 고대 로마법에 연원을 둔 유럽의 전통적인 관념에 입각하여 기록(archives)의 본질을 ‘영속적 기억(perpetual memory)’와 ‘공적인 신뢰(public faith)’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영속적 기억’은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과 사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며, ‘공적 신뢰’는 기록과 사회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공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적 기억의 수단’이라는 정의는 기록의 생산과 유지의 목적과 효용성에 대한 특성적 본질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해준다.

젠킨슨은 공평하면서도 진본임을 믿을 수 있어야만 기록의 기본적인 특성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록에 담긴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분석과 검증이 가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

---

25)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오향녕 편역, 앞의 책, 279-281쪽.

미를 지닌 공통의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록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진본성(authenticity)이었던 것이다.<sup>26)</sup> 듀란티는 이러한 젠킨슨의 주장을 바탕으로 불편부당성, 진본성과 함께 증거력을 갖는 믿을 수 있는 기록의 특성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sup>27)</sup>

- 불편부당성(impartiality) : 생산목적대로의 반영, 생산주체 외 제3자의 이해가 비개입된 성질
- 진본성(authenticity) : 기록 출처나 관리에 대한 환경적 보증(circumstantial guarantee)이 충족되는 성질
- 자연성(naturalness) : 자연적으로 쌓이는 상태가 내적 질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성질
- 상호연관성(interrelationship) : 내용적·형식적 포괄범위와 증거능력을 규정하는 성질
- 유일성(unicqueness) : 개별 기록의 상대적으로 유일한 성질

불편부당성은 기록에 기록을 생산한 주체의 목적과 객관적 사실이 반영되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내용이 담기게 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으로서 이는 기록이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균형을 위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본성은 ‘진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

26) Jenkinson, Hilary,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1937. 『힐러리 젠킨슨의 기록관리편람』, 정부기록보존소, 2004, 10-13쪽.

27)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오향녕 편역, 앞의 책, 286-288쪽.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기록이 참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있어 가장 유력한 지표이다. 진본성은 생산된 기록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태생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판단 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젠킨슨에 있어 진본성은 ‘출처’와 ‘원질서’라는 기록 생산 단계의 환경적 요건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다.

자연성은 그와 같은 과정이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반영되었다는 의미이다. 상호연관성 또한 자연성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실의 복합적 관계가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의미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일성은 활동의 결과인 기록은 본질적으로 중복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역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특성 모두는 기록에 원래부터 내재된 자연적 속성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록으로 생산되어 유지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근래들어 기록관리에서 증시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믿을 수 있는 기록의 정의이다. 진본성에 대한 강조는 우선 전자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록 실체의 물리적 안정성이 떨어진 것에 기인했지만 사실 진본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전자기록환경 이전에도 기록의 증거력 입증을 위해 존재했던 개념이다. 물론 진본성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는 진본성을 단지 고문서 고증 차원의 논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록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있어 기반적 중요성을 갖는 지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전자시스템에서의 영구적 진본기록의 보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패리스(InterPARES) 프로젝트에서는 믿을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하는 요건의 사슬로서 진본성, 무결성과 함께

정체성 개념이 제시되었다. 또한 근래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기록(records) 관리에 관한 국제 표준 즉, ISO15489에서는 기록의 바람직한 특성으로서 진본성,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usability) 등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근래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ISO15489의 네 가지 지표는 기록관리학과 현실 기록관리제도 모두에서 비중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ISO 15489의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진본성이다. 설문원은 영국에서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기록관리 국제표준의 네 가지 특성은 상호 독립된 대등한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본성이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사실상 진본성을 충족하기 위한 지표로 특화될 수 있는 요건들이라고 설명하였다.<sup>28)</sup> 이는 진본성이라는 특성이 기록의 진정요건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양한 측면으로 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듀란티의 진본성의 성격구분은 주목할 만하다. 듀란티는 기록의 진본성을 고문서학적(diplomatic) 차원, 법적 차원 그리고 역사학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고문서학적 진본성은 기록이 기록에 나타나는 장소나 시간에서의 행위와 부합되게 작성 되었는가 그리고 기록에 기록생산에 합당한 자의 진짜 서명이 있는가라는 점이 관건이다. 법적 차원의 진본성은 생산 중 또는 생산 이후 기록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공적(公的) 권한의 개입(intervention)으로 인하여 증거력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역사학적 진본성은 기록에서 다루는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실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가라는 의심에 기반한다.<sup>29)</sup>

28) 설문원, 「기록의 품질기준 분석 -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제11호 한국기록학회, 2005. p 63.

29) Duranti, Luciana, *Diplomatics -New Uses for an Old Scienc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1998 (Lanham, Maryland and London: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진본성은 같은 기록에 대하여 다양한 참의 지표를 제공한다. 우선 고문서학적 진본은 기록이 생산 당시의 절차나 권한에 맞는 과정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사법적 입증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기록생산과 그 표현에 의한 참의 입증이다. 법적 진본은 공적인 개입에 의해 공공의 신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장치가 내재된 것을 의미한다. 법적 진본 또한 고문서학적 진본성 입증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서 법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외적 장치의 성격이 중요한 관건이다. 역사적 진본성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역사학적 진본성을 특화시키면 기록에 담긴 내용과 그와 관련하여 실제 일어난 사실 사이의 상관성에 의해 가능되는 특성이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본성 구분은 기록의 진위를 가늠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판단 체계로서 기록의 진본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듀란티의 진본성 구분은 특히 기록 평가 선별에서 평가 대상 기록을 확인하고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정형화할 수 있는 특성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기록 평가선별 결정에서 이상의 특성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기록의 특성 자체를 기록 평가선별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록 특성론은 평가선별 절차의 출발이자 전제로서 적합한 평가선별 대상을 확인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즉, ‘증거로서 믿을 수 있는 진본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체계 또는 외적 요건을 기록 특성과 연계할 때 평가선별 결정을 위한 전제

---

Scarecrow Press, Inc.): pp. 45-46.

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진본성의 특성적 요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 실행 영역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기록의 생산과 관련된 법규 등의 **제도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검토이며, 둘째 생산된 기록의 **유지관리과정**에 대한 점검으로서 이는 ISO 15489의 무결성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사실관계 부합 여부**에 대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과의 일치성에 대한 검토로서 듀란티가 제시한 역사적 차원의 진본성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구성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평가 선별 대상 확인을 위한 진본 추정 지표

제도적 요건 검토	유지관리 상태 검토	사실 관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 준수</li> <li>· 권한</li> <li>· 적용범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리시스템</li> <li>· 업무절차 구현</li> <li>· 개발요건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화</li> <li>· 사건 · 사물 · 인물</li> <li>· 현상 ·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결정</li> <li>· 절차적 정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연속성</li> <li>- 이용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정보원과의 관련</li> <li>· 일치성</li> <li>· 보완성</li> <li>· 포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 형식</li> </ul>		

## 2) 가치론(value)

일반적으로 ‘가치’란 중요함의 정도로서 인간이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일정 수준의 의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그 대상에 관계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가치는 주체인 인간이 대상과 관계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렇다면 기록의 가치란 곧 기록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의의 정도이자 인간이 기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의 객관적 당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록 가치의 평가는 평가 주체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의 등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록 평가 주체를 ‘생산주체’와 ‘이용주체’ 그리고 ‘집단적 주체’로 구분하고자 한다.

**생산 주체**는 기록을 직접적으로 생산했거나 그러한 생산자를 기능적으로 계승한 실체이다. 생산 주체는 기록의 가치를 활동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와 기록의 생산 형식이나 내용 사이에 필연적 연관관계를 상징한다. 생산 주체에 있어 기록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러한 목적이 가치 의식을 규정한다. 목적에 기반한 가치의식은 상대적으로 증거적인 가치가 정보 가치에 우선한다.

**이용 주체**는 생산으로부터 소외된 이용자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이용 주체는 기록 생산자의 목적을 피동적으로 추구하거나 직접적인 생산목적과 구별되는 별개의 의도로 기록을 다룬다. 이용 주체를 실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별 목적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용에 관한 예측이나 정형화는 정보 형식과 같은 일정 기준의 특성적 척도를 통한 것이나 경험적으로 확인된 이용을 유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집단적 주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로서 집체적 입장을 갖는 실체이다. 집단 주체는 생산자나 개별 이용자의 단순한 양적 집적은 아니다. 집단적 주체의 관점이 추구하는 바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집단적 실재와 기록의 관계이다.

집단적 주체의 설정은 생산 주체나 이용 주체에 의한 특성만으로는 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실제 결정 요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관점의 예는 개별 기록관차원에서의 사명 천명에서 볼 수 있다. 모체 조직에 복무하도록 설립된 기관형 기록관의 사명은 우선적으로 기관의 활동이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것이며 수집형 기록관은 기록관 이용자를 위한 주제 또는 기록 유형이 수집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기록관이 내세우는 사명은 직접 기록 생산자나 개별적인 이용자에 복무하는 것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 기록관에 따라서는 기록관 자체가 추구하는 거시적 지향에 의한 평가 또는 수집 정책이 모체 조직이나 개별 이용자에 대한 복무에 앞서 사명문이나 정책문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사명문이나 정책문은 기록관이 추구하고 있는 기록 평가의 관점이 단순히 생산자나 이용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일반 또는 특정 계층·계급 또는 특정 인종이나 성별의 입장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집단적 주체의 관점에는 그런 점에서 ‘어떤 기록인가’만이 아니라 ‘무슨 기록이어야 하는가’라는 일종의 이념적 지향이 담길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적 관점은 이미 형성된 도큐멘테이션의 분석에서는 물론 수집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실제적 요인이 된다.

실제로 이상의 각 주체별로 기록관 성격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다. 아마도 많은 기록관은 복합적인 지향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 기록관의 평가 및 수집정책의 복합성과 상관없이 집단적 주체를 포함한 각 주체의 관점은 평가선별에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록 평가선별 결정에서 기록 가치론은 특정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

는 개념적 판단체계를 해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기록이 지닌 의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평가선별 결정에서 가장 기본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가치 부여과정에 작용하는 요인은 기록을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기록 평가에서의 특성적 가치 의식 및 지표

생산 주체의 관점	이용 주체의 관점	집단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 행정적 증빙</li> <li>· 정책 목적</li> <li>· 활동 절차 및 체계</li> <li>- 활동의 문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성</li> <li>- 희소성</li> <li>- 정보 형식</li> <li>- 주제의 문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의 범위</li> <li>- 사회적 위치</li> <li>- 당파성</li> <li>- 사회적 관계의 문서화</li> </ul>

### 3) 맥락론(context)

기록의 맥락은 기록의 생산, 기록 사이의 관계, 기재된 내용, 조직된 상태 등의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기록 평가선별 결정의 배경적 요인으로 중시되어 왔다. 기록의 맥락은 기록 평가 시점에 나타나는 가치 의식과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의 맥락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기록의 맥락이 평가선별 결정 요인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기록과 관련된 요소간 상호관계나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존재하는 질서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기록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유를 제공하며 나아가 기록의 맥락이 평가선별 결정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기록의 맥락은 개별 기록의 생산, 유통 및 활용과 관련된 미시적 접근 그리고 동시대의 전 사회적인 또는 통시적 차원의 집합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 해명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포괄하면서 기록 맥락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록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기록이 존재하는 공간적 특성을 포용하는 정형화된 요소의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기록의 맥락에 접근하기 위한 요소로서 기록의 생산 환경, 이용 조건, 기록 간 상호관계, 사회적 함의 등을 상정하였다.

먼저 생산 환경은 생산을 전후한 즉, 생산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를 포함하며 기록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기록의 상호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조건은 기록을 통해 일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주체의 의도와 기록간의 상호관계에 해당한다. 기록 간 상호관계는 일정하게 성립된 도큐멘테이션 내에서 기록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함의의 맥락 요소는 거시적 관점에서 기록 집합과 사회 사이의 관계 해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정치·문화·경제 등 사회의 상·하부 구조 모두를 포괄한다.

**생산의 맥락**을 통해서 기록의 생성과 관련된 배경적 사유를 해명한다. 기록의 생산과 관련된 배경을 해명하는 것은 기록이 만들어진 조직적·기능적 근원으로서 출처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있다. 기록의 생산 맥락은 기록의 생산과 관계된 내적 인과관계를 추론한 근거 위에 성립한다. 따라서 기록 생성 자체만이 아니라 생성되기 이전부터 작용한 일정한 요인이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기록 생산 배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케텔라르(E. Ketelaar)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생성되기 이전에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사전 요인을 해명하는 것이 기록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의 배경적 요인과 기록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 사이에 하나의 잘 드러나지 않는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기록의 생산과 관련하여 ‘기록될 만한(*archivable*)요인’, 이러한 요인의 작용으로 인한 ‘기록의 실질적 조건 조성(*achivalization*)’, 그리고 요인이 조건으로 조성되어 구체적인 기록으로 생성되는 ‘기록화(*archivation*)’와 같은 개념을 제시하였다.<sup>30)</sup> 케텔라르가 기록 생산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세분화된 개념을 통해서 제기하려 한 것은 기록의 생산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정한 요인이 구체적 기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범주화된 조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기록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은 생산 이면의 ‘암묵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배경요인으로서 기록 평가선별 결정의 분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용의 맥락**을 통해서는 기록 생산 행위를 제외한 모든 활용에서 포착될 수 있는 의도와 기록의 상호관련성을 해명한다. 직접적인 생산목적과 구별되는 이용과 관련된 의도는 다양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다양한 의도는 기록이 지닌 의미 전반을 반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의도된 의미들의 개별 내용과 상호관계에 접근하는 것이 이용과 관련된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최초의 기록생산자가 부여한 의미는 출처주의나 원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해 기록 관리의 중요 기준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렇지만 여

---

30) Ketelaar, Eric, “Tacit Narrative :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Vol.1, No.2, 2001, pp. 132-134.

기에서 이용 맥락을 제시한 것은 기록을 통한 의도가 생산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만 보지 않으며, 생산자나 관리자 그리고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적 과정에서도 역시 일정한 의미 부여가 시도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여된 의미에 따른 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들은 기록 이용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다양한 ‘의도된 의미’를 구성한다.<sup>31)</sup> 케텔라르는 기록에 관한 의미를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는데 다양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배열되는 동적(動的)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의미계통(semantic genealogy)’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록에 관한 다양한 의도된 의미의 본질을 설명하려 하였다.<sup>32)</sup>

기록의 내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를 구별하려는 사고에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기록의 실제적 본질에 접근하려 한다. 다양한 의미를 기록의 실제적 존재와 관련시키는 경향은 사물의 유일한 의미로 회귀하는 이데아적 자기동일성을 추구한 형이상학을 비판했던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deconstruction)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sup>33)</sup> 이에 따르면 하나의 기록에 대하여 변하

31) Lemieux, Victoria, “Let the Ghost Speak: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the Records” *Archivaria* 51, 2001, pp.80-111.

32) 케텔라르의 ‘의미계통’은 미리 정해진 내용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계통에 접근하는 개별적 추론 또는 탐문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Ketelaar, Eric, “Tacit Narrative,” pp.137-139.

33) 아키비스트로서 데리다를 분석한 글로는 Brien Brothman, “Declining Derrida: Integrity, Tensegrit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es from deconstruction,” *Archivaria* 48(Fall 1999): pp. 64-88을 보라. 테리 쿡은 기록학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영향이 다른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형식의 재정립 추동하는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는 텍스트의 본질적 성격의 재고라는 두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록의 특성과 생산, 또한 그것이 아카이브즈로 확인되어 남겨져 보존되는가를 통하여 국가의 공식적이며 신성화된 기억으로서 형성되는데 있어 하나의

지 않는 단일한 의미는 성립될 수 없으며 단일 기록으로부터 다양한 다른 의미가 발현된다. 그리고 기록의 본질은 기록의 변하지 않는 단일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의미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흔적 이른바 ‘차연운동(差延運動)’ 속에서의 자기 동일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기록과 그것에 담긴 고정된 의미의 일원적 관계는 해체된다.<sup>34)</sup>

이는 자칫 기록의 의미를 무한케도에 뒹으로써 결국 본질적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단정은 다양한 의미의 파악이 갖는 기본적인 지향과 무관하다. 기록과 그 의미의 일원화를 지양함으로써 추구하는 바는 기록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의 보다 충실한 해명이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활용이라는 요소를 독립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이용과정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직접적인 평가 결정 실행과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근거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 간 관계의 맥락**은 일정하게 형성된 도큐멘테이션 내에서 기록 간 상호관련성 해명을 위한 것이다. 활동의 결과로서 기록은 대개 상호 연관된 활동의 의도와 결과가 투영된 것으로서의 연관된 일체를 이

---

제도로서의 아카이브즈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테리다로부터 비롯된 텍스트의 불안정성 그리고 텍스트 생산자간 관계 또는 과거 활동 흔적으로서의 불안정성은 근래 컴퓨터혁명에 의한 전자 매체의 등장으로 보다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는 서구(西歐)의 글쓰기와 기록 만들기의 전통 다시 말해, 언어를 사용한 이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분명히 실재하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Cook, Terry,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Vol.1, No.1, 2001. p 5-6.

34) 이승억,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6호, 한국기록학회, 2002 pp. 49~50.

루게 되는데 그 연관된 기록 사이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일정한 평가선별에 관한 우선순위가 성립가능하고 이와 같은 우선순위로 표현되는 기록 간 관계는 기록 평가선별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개별 기록의 경우 물리적 그리고 지적(知的) 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는 비교 방법을 통해 기록 간 관계를 규명한다. 개별 기록차원의 비교 과정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작업으로 단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비용과 기록의 질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작업이다. 집합 기록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로서 또한 전체 과정의 연속적 연계로서 전체와 부분 사이에 성립된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관 관계로부터 도큐멘테이션 속에 존재하는 기록의 내적 질서가 도출될 것이며, 이는 다시 개별적 주제나 전체적 도큐멘테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기록 간 관계의 맥락은 존재하는 기록에 대한 지형을 파악함으로써 평가선별 대상인 개별 기록 또는 집합 기록간의 관계와 비중을 가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기록관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광역화된 차원에서 보다 의미를 갖는다. 기록 간 관계의 맥락은 사회적 차원의 계획적인 기록의 평가선별의 결정 요인으로서 또한 평가선별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다.

**사회적 함의의 맥락**을 통해서 특정 기록 집합과 사회의 관계가 해명된다. 기록의 생산은 각각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 활용 또한 나름대로의 효용에 따른다. 이러한 생산과 활용은 하나의 사회적 양식에 규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기록 또한 그러한 양식으로부터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붐스를 비롯하여 기록이 사회를 표상해

야 하며 기록은 그 자체가 그것을 만든 사회를 통해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평가선별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적 함의는 기록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보다 확대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기록에 대한 사회적 함의에 대한 접근은 개별기록의 생산과 보존 영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별 기록을 통한 접근의 경우도 그 결과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확장된 해명이 개별 기록에 적용된다. 즉 개별기록의 작은 구멍을 통해 사회를 본다는 것이다. 보다 거시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보다 직접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구체성이 사상된 사회적 맥락의 규명이 추구된다.

기록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접근에서는 기록의 가치를 특정한 사회구성체적 요소로서 정치·문화·경제의 상부 및 하부구조와의 특성적 관계를 통해 가늠한다. 이를 통해서 결국 기록은 한정된 분야나 주체의 증거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총체에 대한 증거 즉, 사회 전체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기록의 평가 선별 결정에서 가치 적용에 기반한 방식이 일정한 목적의식을 기록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맥락을 파악하는 접근방식은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기록의 내·외적 질서를 통해서 기록에 담겨 있는 의의에 도달하고 거기에 상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 평가선별 결정요인으로서 기록의 맥락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한 정형화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기록 맥락론은 개별기록에 대한 평가선별로부터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평가 선별 결과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기록 맥락론을 구성하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기록 평가선별 결정에서의 맥락 및 지표

생산의 맥락	이용의 맥락	기록 간 관계의 맥락	사회적 함의의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화 요인</li> <li>- 기록화 과정</li> <li>· 형식</li> <li>· 내용</li> <li>- 출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주체</li> <li>- 이용 유형</li> <li>- 이용 목적</li> <li>- 이용의도의 계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큐멘테이션 구성</li> <li>· 내적 연관 관계</li> <li>· 도큐멘테이션 간 관계</li> <li>- 증거 연계성</li> <li>- 주제 연관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구조</li> <li>- 하부구조</li> <li>- 국가·시민사회 관계</li> </ul>

#### 4) 소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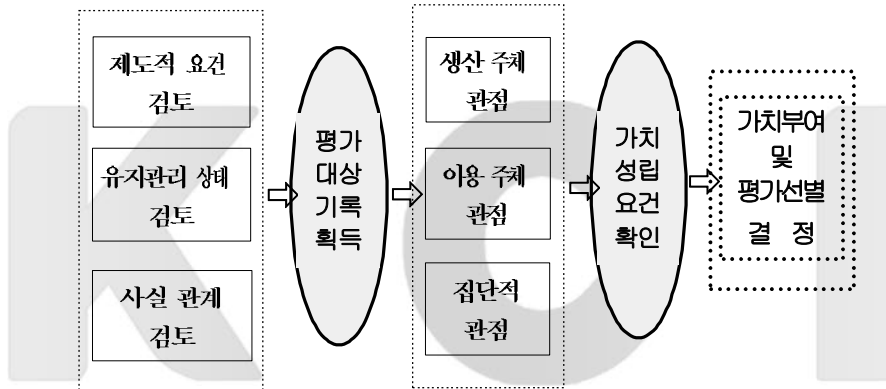
기록의 특성, 가치, 맥락으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지표들은 평가선별 결정에 이르는 검토 과정에서의 기준을 구성한다.

특성의 확인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록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선별을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평가 선별 결정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믿을 수 있는 진본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춘 ‘진본성의 추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가치와 맥락에 기반한 평가선별에서는 각각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서 남겨야 할 기록을 확인한다. 가치 부여에 기반한 접근방식의 평가선별은 일정한 가치의식과 그에 따른 지표를 기록에 적용하여 가치의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치 범주를 구성하는 가장 포괄

적인 것은 증거와 정보이다. 증거와 정보는 상대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전체로서 기록 가치의 본질적 특성을 담은 가치 일반을 이룬다. 가치에 의한 평가는 가치 성립요건의 확인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는 가치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의 특징적 지표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가치에 의한 접근에서 평가선별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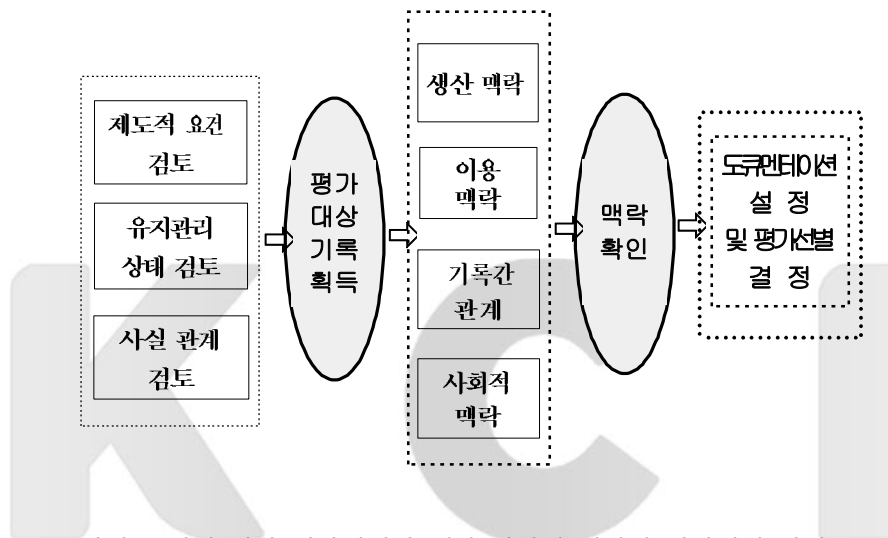
<그림 4> 가치 확인을 통한 평가선별 결정 과정



맥락의 확인을 통한 평가선별은 가치 의식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로서의 기록 그리고 기록 생산자 및 이용자가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형식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진행된다. 맥락에 기반한 평가에서도 평가대상 기록의 확인 및 획득은 필수 과정이다. 맥락에 기반한 평가선별에서는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실재하는 기록을 둘러싼 실체적 관계들 속에서 의미 있는 질서를 짚고 이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선별 범위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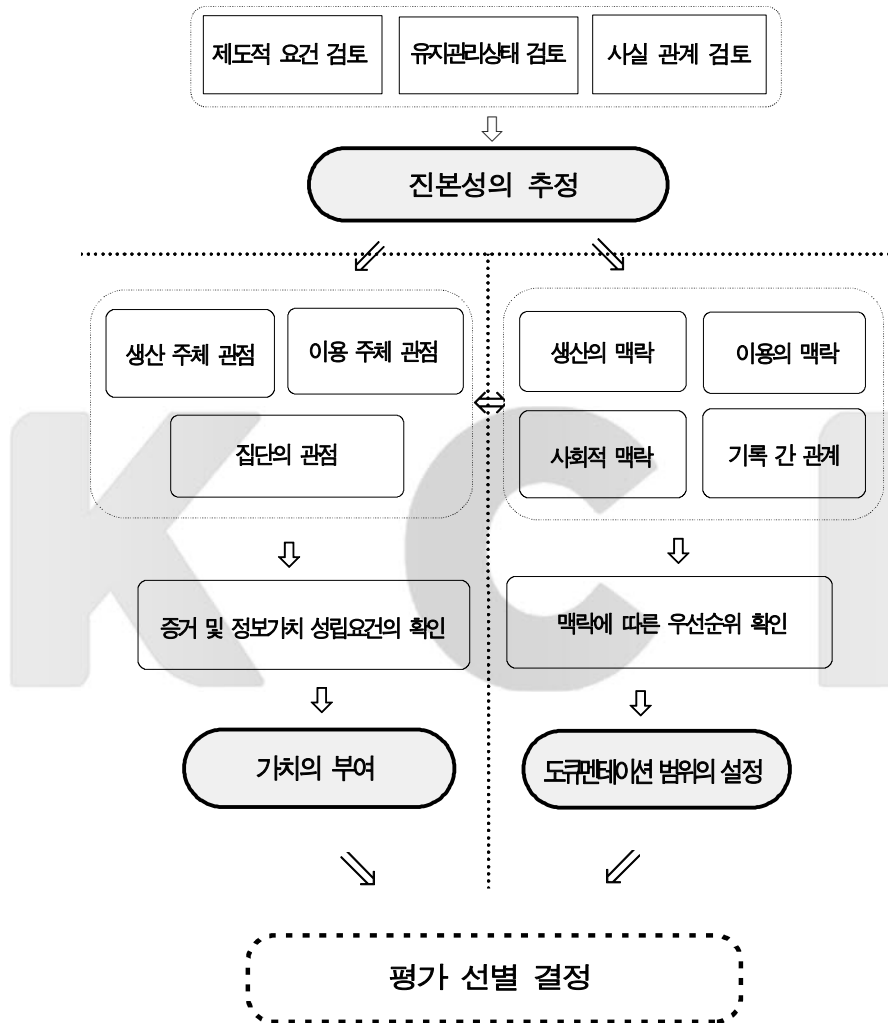
순위를 결정한다. 맥락에 기반한 평가선별 결정은 기록의 생산, 이용, 사회적 맥락 그리고 기록 간 관계에 속한 각각 지표의 확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맥락 확인을 통한 평가선별 결정 과정



가치 부여에 의한 평가선별과 맥락 파악에 기반한 평가선별 과정은 배타적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다. 평가선별 결정에서 기록에 대한 가치 부여 과정은 실제로 일정 부분 맥락의 파악에 의존하기도 하며 맥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가치 의식이 전혀 배제되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이 두 가지 접근은 실제 기록 평가선별의 결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평가선별 결정의 이론 범주를 바탕으로 통합된 평가선별 과정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기록 평가 선별 흐름 및 결정요인 개념도



#### 4. 맺음말 - 기록평가선별에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

이상 평가선별을 결정짓는데 있어서의 개념적 기반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기법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평가선별 결정의 실질적 중요 요인임에도 본문에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한 것이 있다.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에 대한 생산 맥락이나 개별 용도를 추정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의미를 추론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이해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므로 기록 평가선별 결정을 위한 폭넓은 지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록평가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오래된 논쟁의 대상이었다.

기록 평가선별에서 아키비스트 역할에 대한 논쟁은 생산자를 사실상의 기록 평가자로 보는 입장과 아키비스트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입장 간의 이견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켄킨슨의 경우 기록은 생산 당시 형성된 구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에 의한 평가선별을 가치의 자의적 훼손으로 간주하였다. 켄킨슨이나 듀란티에 있어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선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관자일 따름이었다.

기록 라이프사이클 관념이 발전한 미국에서는 당연히 생애주기별 구분에 따른 차별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에서 아키비스트에게는 평가선별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부여되었다. 1970년대 아키비스트의 기록평가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었지만 이때도 기조는 ‘과연 이제까지

아키비스트에 의해 평가선별되어 남겨진 기록이 동시대 미국의 대표적인 척도인가'라는 자성이었을 뿐 기록평가선별에서 아키비스트가 맡아야 하는 문화적 역할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었다. 붐스에 있어서도 아키비스트는 기록유산의 형성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에서 공공기록에 반영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문화적 대표성이 미래 세대에 전수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록평가에서의 아키비스트 역할에 관한 이견의 이면에는 기록을 선별하는 관점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 즉 아키비스트의 개입을 부정하는 입장이 기록 선별 기준을 기록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에 귀착시킨다면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당연시한 경우는 계속적 가치에 의한 활용 가능성을 아키비스트가 포착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생산목적에 의한 선별 기준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전체 기록군은 퍼즐그림과 같아서 조각 하나를 임의로 골라내는 것은 곧 전체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계속적 이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평가 이전의 기록군은 정리가 필요한 잔가지 많은 나무에 불과하다.

근래 들어 다른 차원에서 기록관리 영역으로부터의 생산개입이 부각되고 있다. ISO 15489에서 그리고 이를 채택한 국가의 공공분야 기록관리체제에서는 자동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요건으로서 기록관리 영역의 생산에 대한 개입이 당연시 되고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기록 생산 단계의 사전 개입의 정당화는 공공영역의 투명성이나 설명책임성 담보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자기록의 확산과 함께 대두된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 문제가 투영되어 있다. 종이 기반의 공공기록관리에서는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로 인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생산에 대한 개입이 당

연시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역할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아키비스트가 대행(代行)하는 생산에 대한 개입은 조작되지 않은 ‘증거’의 관점에서의 생산 통제를 지향하며 또한 개입과정이 어느 정도는 업무분석이라는 생산과정과의 조정을 통해서 진행되므로 생산목적의 불편부당성을 해치는 개입에 대한 젠킨슨류의 비판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입 자체가 아키비스트로 대표되는 기록관리 영역의 이해에 기반하여 기록관리상의 목적에 따라 생산 취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의적인 변경에 관대할 수도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 관리영역으로부터의 이해가 반영되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도큐멘테이션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불필요할지 의문이다.<sup>35)</sup>

생산분야 대한 기록관리의 개입을 당연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기록 평가선별에서 기록 하나 하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정보저장 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록관리에

35) 듀란티는 아키비스트의 문화적 사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두 가지 척도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문화를 이념과 행위의 총합으로서의 사회적 산물로 간주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산물을 가급적 많이 축적하는 것이 사회를 기록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를 배경을 지닌 의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하고 기록 역시 그러한 상호작용이 산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전자가 다다이즘으로 많은 기록이 남는데 의의를 두고 그것을 위한 개입 역시 인정하는 반면, 후자는 의도적 개입이 다른 의도와 행위의 산물인 기록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기록의 애초 맥락을 변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듀란티는 애초 맥락도 중시하고 목적의식적인 수집도 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아키비스트에 의한 개입이 기록군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오향녕 편역, 앞의 책, 299-301쪽.

서 평가선별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주장도 성립 가능하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저장될 기록정보의 결정은 여전히 자본이나 정보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라는 규정적 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고도의 정보통신 환경에서도 기술적 요인 이외에 특정계급·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기록 정보의 생산·보존·활용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도큐멘테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키비스트는 전자환경에서도 합당한 평가선별 결정을 위해 그러한 맥락을 포착하는데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단순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기록관리 체제에서 평가담당 아키비스트에게 부여된 직무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영역이다. 자동화된 시스템에 기반한 기록관리체제에서도 평가선별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급적 모든 실행모듈이나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기록관리시스템 전반에 인식가능도록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nalysing Archival Appraisal and Selection Decision : Theoretic Approach

Lee, Seung-Eok

Archival appraisal has been a significant field and demanding task in thoughts and practice about modern archive, in particular, because of insufficiency of resources for the preservation in comparison with the large scale of recorded information. Appraising records does naturally go with the selecting and acquiring them. In the field of appraisal, however, comprehensive accountability on appraisal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election and acquis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proposition of the theoretic approach to the analysis of the factors concerning the archival appraisal. For this purpose, I would try not the actual practice of the archival appraisal but theoretical categories of archival appraisal decision.

The archival *Characteristic*, *Value*, and *Context* will be proposed as theoretical categories for the analysis of archival appraisal decision. Firstly, *Characteristic* category makes it clear to identify the reliable and authentic records, and then, *Value* provides us with elucidation about the appraisers' recognition of values. Lastly, *Context* explains the priority of selection throughout creating, using, interrelationship, and social meaning of archives.